

## 어명소 2차관, 당진항 현대제철소 피해상황 점검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7일(일) 오후 1시 40분부터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운송차량의 운송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  
- 어 차관은 현대제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“현재 철강 업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철도·해상 운송만 진행하고 있어 11월 출하계획 중 47%의 물량만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,
  - “철강산업은 자동차·조선·건설 등 우리 핵심산업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, 출하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가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  
- 이어서 어 차관은 “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제품을 출하해서 국민경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라며,
  - 운송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과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”며 금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.
  
- 또한, “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계획으로, 화물연대는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2022. 1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